

오피니언

다산포럼

김민환



KBS가 월 수신료를 2500원에서 65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수신료를 한 푼도 올리지 못했으니가 인상 요인은 낫 설명이 없어도 짐작할 만하다. 그러나 이 문제가 KBS 뜻대로 쉽게 풀릴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는 드물다. 이 문제는 물가나 경영의 문제라기보다 정치문제가기 때문이다.

인 민주당이나 진보주의 시민단체는 불퇴전의 기세로 저지 투쟁에 돌입했다. 최근에는 각 정당과 5백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KBS 수신료인상저지 범국민행동이라는 단체까지 결성했다.

공영방송 KBS의 주인은 시청자이고,

KBS 수신료는 올려야 하는가?

수신료는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을 위해 내는 것인데,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정권 홍보를 하는 방송을 위해서라면 단 한 푼도 낼 수 없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아마 이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될 때에는 야당 쪽에서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면서 야당 수신료 분리 징수제를 추진하는 법안을 낼지도 모른다.

수신료 논쟁의 등 뒤에는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현실이 여과 없이 투영되어 있다. 어느 정당이건 정권을 잡으면 KBS를

정권의 앞잡이로 만든다. 그렇게 하여 KBS가 공영성을 내광개치고 여당 매체가 되면 야당은 사사건건 KBS의 발목을 잡는다.

수신료를 올려야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해 정치인들은 일구이언(一口二言)을 법 먹듯이 한다. 여당이 되면 올려야 한다고 했다가도 야당이 되면 올려서는 안 된다 고 말을 바꾼다. 야당일 때는 극구 반대하지만 여당이 되면 절대 찬성한다. 말에 일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그들은 단지 'KBS가 아군일 때는' 또는 '적군일 때는'이라는 전제를 생각했을 따름이

길이다. 수신료를 올리는 길이고 KBS가 공영방송의 제자리를 찾는 길이기도 하다. 정권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사장이 앞장 서서 의압을 막고 내부 구성원들에게 편파방송을 하지 말도록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내 기구에 힘을 실어주고, 필요하다면 중립적인 전문가를 중심으로 특별 기구도 만들어야 한다.

둘째, 보도의 경영이 어렵다면 수신료를 올려서 하기 전에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KBS에 들고먹는 고액연봉자가 부지기수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아니다. 경영이 방만하다는 것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런 문제를 덮어두고 경영난을 오로지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일이다.

KBS 수신료는 이제 올릴 때가 되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올릴 때가 지나도 한참 지났다. 공영성 보장이 없는 한 올릴 수 없다는 논거라면 백년하청(百年河清)이다. 올려놓고 지켜보는 게 순리다. 그러나 KBS는 지금 국외자가 이 정도 이야기마저 부담 없이 퍼기가 민망스럽게 만들고 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생각난다. <고려대 언론학부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약자 배려’는 지자체 의무이자 책임이다

전남도내 일선 자치단체가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교통 약자의 편의를 위해 저상버스 25대를 도입하기로 했다가 1년도 못돼 무더기로 취소했다고 한다. 운영·관리가 너무 많이 들어 지자체 재정 형편상 힘이 부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사회적 약자 배려 정책을 마친 생애 내기 수단쯤으로 여겨 ‘아니면 말고’ 식으로 치부하는 지자체의 의식수준이 한심스럽다.

전남도의 2010년 세입·세출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일선 시·군이 교통 약자용 저상버스 구입을 위해 예산에 책정했던 18억7500만(25대) 가운데 12억9000만 원을 삭감했다. 당초 예산보다 64.5%가 감소한 것이다.

이 같이 저상버스 구입비가 대폭 삭감된 것은 해당 지자체가 과다한 운영·관리비 등을 이유로 저상버스 도입 예산을 감액했기 때문이다. 여수시의 경우 예초 20대의 저상버스를 구입하겠다고 해놓고 이번 추경에 달랑 2대만 신청

했다. 영암군도 2대를 구입하겠다고 약속하고선 한 대도 구입할 수 없다며 예산 삭감을 요청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인간 중심의 교통문화를 정착한다면 실컷 생색을 내놓고 1년도 채 안돼 슬그머니 꿈꾸니 뻥 것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 모두의 의무이자 공동책임이다. 무엇보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실천의지가 따라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특히 이미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 전남지역은 ‘약자 배려의 복지’가 최우선 정책이 돼야 한다. 그럼에도 아무런 준비나 검토도 없이 저상 버스 도입을 약속해 놓고 돌아서서 취소하는 것은 지자체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고 주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일선 지자체는 형세만 측내는 각종 축제나 행사, 전시성 사업을 대폭 줄이고 주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진정한 인간 중심의 약자 배려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성범죄 예방 학부모 관심 우선돼야

여름방학기간 동안 어린 자녀들의 신체적 노출이 많고 행동이 자유로워 성범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이 여름철에 주로 대낮 시간대, 학교 주변 골짜기, 놀이터, 주택가 골목길 등지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주지방경찰청이 분석한 ‘아동 성범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광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범죄 20건 가운데 초여름인 6월에 일어난 건수가 9건으로 가장 많다는 것이다. 범행은 대낮 시간대인 오전~오후 6시 사이에 13건이나 발생했다고 한다.

범행 장소는 학교 주변이나 놀이터, 주택가 골목길 등지로 각각 5건씩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성범죄 가해자가 대개 친척이나 이웃 등 피해 아동의 얼굴을 아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이 이처럼 아동 성범죄 분석 자료를 만든 것은 범죄 예방에 대한 나름의 의지로 여겨진다. 그러나 어린이가 활동이 자유로운 방학기간에 대해 유치원이나 학원을 오가고 놀이터에서 놀 때도 여럿이 함께 놀도록 하는 등 여러가지 예방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하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실상 성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되고 생물학적 세계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게 자국의 현실이 아닌가. 정부가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성범죄를 예방하려겠다는 의지도 현실 앞에 사실상 곱돌고 있다. 결과적으로 학부모의 역할과 경찰의 노력, 정부의 의지 등 삼위일체를 통해 재발 방지라는 작품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다.

無等鼓

최근 여의도 정사에서 폭염 못지않게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강홍식 한나라당 의원의 성희롱 발언은 일파만파였다. 강 의원은 국회 주례 토론회에 참가한 남녀 대학생과 만나 나는 대화 내용이 보도된 이후 야당에서는 그에게 국회의원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 아내나서를 희망하는 여대생을 불러 싸고 번진 성희롱 시비 내용에는 대통령까지 거론돼 그 파장은 메가톤급으로 커졌다. 강 의원 본인은 극구 부인하지만 나중에 대화에 동석했던 대학생들까지 성희롱 발언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나서는 바람에 대에는 강 의원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강 의원 발언 사태가 찾아들기 전 또 한 번의 설화가 불거졌다. 현직 고교 교사이자 EBS에서 강의하고 있는 장희민 씨는 지난 24일 인터넷에 유포된 동영상 강의에서 “군대는 죽이는 거 배워 온다는 곳” “여자들이 그렇게 힘들게 낚아 놓으면 죽이는 거 배워 온다” 등의 발언으로 네티즌의 거센 비난을 불러 일으켰다.

이번 사태에서 강 의원이나, 장 강사가 억울할 할 수도 있지만 듣는 이들이 수치를 느꼈거나 공분했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게 사법과 여론의 판단 잣대이다.

자신의 철학이 묻어 나오는 말, 화를 면하는 방법은 절제와 조심뿐이다. /박지경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때로는 자리에서 물러난 사례를 찾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사람들, 특히 사회지도층의 잘못된 말에 신경을 기울이고 부적절한 언사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말 속에 그 사람의 그릇된 철학이 담겨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때로는 자리에서 물러난 사례를 찾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사람들, 특히 사회지도층의 잘못된 말에 신경을 기울이고 부적절한 언사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말 속에 그 사람의 그릇된 철학이 담겨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때로는 자리에서 물러난 사례를 찾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사람들, 특히 사회지도층의 잘못된 말에 신경을 기울이고 부적절한 언사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말 속에 그 사람의 그릇된 철학이 담겨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때로는 자리에서 물러난 사례를 찾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사람들, 특히 사회지도층의 잘못된 말에 신경을 기울이고 부적절한 언사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말 속에 그 사람의 그릇된 철학이 담겨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설화



NGO 칼럼

김민수



우리 연대는 광주시와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자연환경 훼손행위 및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활동과 시·도민 환경관련 여론 수렴 및 건의, 환경정화활동 등 환경보전감시와 계몽활동을 하고 있다.

급속이 들어있는 소각재를 마시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 스스로 불법 소각을 스스로 없애기 위해서라도 시민단체가 나서서 감시하고 지적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불법물질인 다이옥신은 폐암·간암·임파선암 등을 유발하며 신생아를 낳을 때 기형 발육장애 등 생식계 장

특히 자연 환경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환경보전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가족 환경 지키미 프로그램운영 등 환경보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끊임없이 펼치고 있다. 환경이 곧 미래를 지배

불법 소각 현장을 보며

하기 때문이다. 우리 연대는 환경보전감시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는 불법 소각 행위를 많이 봐왔다. 이를 보면서 우리가 앞장서서 계몽하지 않으면 후손들에게 병들어버린 환경을 물려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꼈다.

에와 면역력을 손상시킨다. 또 납·수은 등 중금속은 신경마비·언어장애·사지마비 등 끔찍하고 무서운 질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이처럼 무심코 저지른 불법 소각행위, 이에 따른 환경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심각하다. 하지만, 이를 책임질 사람은 없다. 누가 이 책임을 질 것인가?

우리가 나와 그리고 가족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올바르게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는 등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다면 훼손된 자연을 다시 원형 그대로 되살릴 수 있다. 후손에게도 깨끗한 선조가 될 수도 있다.

인간은 환경을 떠나서 살 수 없다. 환경과 함께 숨을 쉬며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야 하는 게 바로 인간이다. 인간은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은 인간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 모두가 환경 보전을 생활화해 우리의 후손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주자. <환경보전시민연대 대표>

기존 공공기관 화장실 남녀비를 개선됐으면

얼마 전 남자 친구와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갔다. 늘 경험하는 일이라 인젠가는 고쳐지겠지 하면서 기대를 걸어버리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영화관의 무관심에 이번에도 상당히 불쾌하고 힘든 경험을 했다.

지 못하기 때문에 남성들의 세 배 가까이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이처럼 영화관 같은 공공장소의 화장실 크기와 숫자는 여전히 남녀 동수인 채 그대로이다.

참고로 영국에서 예전에 이 같은 차별대우를 고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위원회까지 만들어 조사를 했더니 남성의 평균 화장실 이용시간은 35초인데 비해 여성은 90초로 나왔다고 한다.

법적으로야 앞으로 증축되는 건물은 여성 화장실을 더 많이 짓도록 하고 있지만 이미 지어져 있는 대부분의 공공장소(놀이공원, 영화관 휴게소 등)는 정말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모르겠다. ▲이세영·광주시 광산구 비아동

기고

김창석



장흥읍의 풍족한 수자원과 탐진강 수변의 친환경적이고 수려한 경관을 배경으로 장흥군이 시도한 물 축제가 올해로 3회를 맞는다.

이달 28일부터 5일 동안 장흥읍 생태공원과 탐진강 수변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 3회 대한민국 전남권 물 축제는 물의 가치를 다시 새기면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리다. 축제에서는 물과 숲과 음식을 테마로 한 각종 체험과 문화행사가 곳곳에서 진행된다. 그 중 백미는 팻말 타기 경주다. 모처럼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들을 만나게 된다. 여기에서 장흥군의 브랜드를 살려 가

정남진 물축제 맘껏 즐기세요

명의 근원'이다. 이제 물 산업은 첨단기술 녹색기술과 융합되어 발전하는 신성장 동력으로서 미래의 경제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육성되고 있다.

간 중 문화관광 기행특구와 생약초 한방특구, 토요시장의 고장, 한우특구답게 전국 문화인 대화와 생약대전을 펼쳐진다. 편백 숲이 울창한 우드랜드, 슬로우시티 등 건강 미학의 웰빙현장도 선보인다. 거리무대에선 세미누드 촬영대회, 병아리 잔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물에 관한 우리 선조들의 안목도 뛰어나다. 상수도 시설이 생기기 전의 주된 식수원은 우물이었다. 태종은 서울로 재건도한 직후 다섯 집마다 하나씩 우물을 파도록 하여 조선시대 사대문안에만 무려 3000개 이상의 우물이 있었을 것으로 전해온다.

정남진 물 축제는 최근 노력해서 제주도 상산포까지 2시간대의 뱃길이 뚫렸다. 무산김과 키조개, 갯장어, 낙지, 표고버섯 등 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지로도 유명하다. 이렇게 멋스런 곳에서 인간이 물에 대한 경의심을 지피고 물의 가치를 향유하는 축제의 마당에 특히, 도시 가족들의 단란한 나들이를 권유 드린다. 장흥군민들은 지금 손뼉맞이 준비에 분주하다. <장흥군 용산면장>

아르바이트 하기 전 '근로계약서' 꼭 작성해야

얼마 전 동생이 군 입대 전 용돈을 받으며 3개월 동안 일하기로 업주와 약속하고 서울 여의도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러나 갑자기 어머니가 임원하게 돼서 간호를 위해 한 달만 일하고 그만뒀어야 할 상황에 처했다. 그런데 한달치 임금 65만원 중에 중도사직을 이유로 임금을 전부 주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들에게 이런 경험이 적은 학생을 위주로 아르바이트의 기본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작성,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할 경우 근로조건 녹음, 급여에 식대 포함 여부 명시, 시간 외 근무에 대해 기록을 남기는 방법 같은 걸 교육해야 할 것이다.

주변에도 시간 외 근무, 시급에서 밤값 공제, 최저임금 위반, 언어폭행 같은 여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항도 못해보고 그냥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대학에서는 학생

또 학생들 스스로도 약간 억울하다고 느꼈을 경우 상세한 내역을 꼼꼼히 기록해 놔다가 이런 일에 능숙한 선배, 또는 노동사 등의 힘을 빌려 약력 업주들에게 노동착취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길 바란다. ▲유현권·광주시 동구 대인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

Table with publication information for Kwangju Ilbo,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subscription rates.